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4호 【루계 제25487호】 주체105(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는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와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해 11월 공장을 세번째로 현지지도하시면서 자주 찾아와 신발생산정형을 알아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손꼽아 기다리며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좋은 구두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낯익은 공장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공장의 로동계급이 충정의 70일전투기간에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200일전투목표를 지난 8월말까지 빛나게 완수하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꾸려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멋쟁이구두를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시며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진 때로부터 자그마했던 이 공장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공장, 온 나라에 소문난 신발생산기지로 장성강화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도록 연혁소개실을 잘 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을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림으로써 공장에 주신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출작업반, 제화직장, 갑피직장, 도안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신발창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사출작업반의 기대공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200일전투과제를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끝낸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화직장에 들리시여 뒤축형잡이, 앞끝기, 뒤끝기, 진공가류기, 창압착기 등으로 이루어진 제화흐름선을 타고 구두가 생산되는 과정을 유심히 보시였다.

지난해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가르쳐주신대로 제화흐름선에 적외선등을 설치한 결과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접착세기를 2.5배로 높일수 있게 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비록 단순한것이지만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갑피직장을 돌아보시면서 구두생산에서 선행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일손을 다그치는 재단작업반원들과 능란한 솜씨로 갑피들을 련속 누벼나가는 재봉공들의 일솜씨가 여간이 아니라고, 기술기능수준들이 높다고 하시였다.

도안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신발설계에 최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신발주문봉사체계를 위한 현대적인 발측정장치를 연구제작하였을뿐만아니라 수백여종의 신발형태도안을 창작하여 생산에 받아들인데 대해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형태의 남자구두, 녀자구두, 어린이구두를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신발종수가 늘어나고 신발모양이 더욱 세련된것이 알린다고, 정말 보기 좋고 흐뭇하다고, 신발풍년이 들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견고성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투쟁한 결과 구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맵시있을뿐만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고 부러운것없이 잘살게 하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울수 있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우리 인민은 제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불보다 뜨겁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양하게,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을수 있게 만들어 안겨줌으로써 인민들이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페부로 절감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체질과 년령심리적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르는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데 대한 문제, 모든 생산공정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 손로동을 완전히 없앨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새로운 선진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짜고들데 대한 문제, 신발형태도안을 시대적 및 민족적미감에 맞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창작할데 대한 문제, 협동품을 비롯한 원료, 자재보장에서 당의 국산화방침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니 종업원들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안팎을 정성껏 관리해가고있는 그들의 공장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앞을 지나다가 예고없이 들렸는데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답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것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배봉산》상표를 단 명제품, 명상품들을 쌍쌍 생산하여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농업근로자동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진지는 정치사상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커다란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애국충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200일전투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린 우리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투쟁기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충천하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근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고 당의 령도따라 농근맹과 농업근로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농업근로자동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을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농근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당의 웅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농업근로자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총진군에서 농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더없이 중요하고 방대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번 서한에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진지의 위력,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비약적인 단계에 올려세우며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과 휘황한 진로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실제도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전례없는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것은 우리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의 크나큰 영광이며 긍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서한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촌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힘찬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을 위한 만년기틀을 다져놓으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인 사회주의농촌테제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새 세기 농업혁명방침과 농촌건설의 강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세년년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올수 있었다.

우리 농업부문의 그 어느 단위, 그 어느 협동벌에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과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농업부문에 어려있는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 길이 곧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길이다. 이번 서한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근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이 땅우에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들께 끝없이 충직한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으며 수령님들께서 안아오신 황금벌의 력사를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서한은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최대로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농업근로자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력량이며 오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이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당의 의도대로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불러와 우리의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농업근로자동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의 높은 단계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며 농근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농업근로자동맹이 당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 길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길이 있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선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겹쌓이지만 위대한 당이 높이 추켜든 백승의 기치따라 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과 조국,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에 담겨져있는 기본정신이다. 모든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힘을 넣어 그 진수와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서한의 매 문장, 문구들을 파저가며 학습을 심화시켜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을 환히 꿰들어야 한다. 서한에 대한 학습과정이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장깊이 체득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농촌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고 휘황한 설계도이며 농업근로자동맹이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현하여오신 사회주의농촌테제에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농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당의 농업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의 사상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제시된 농촌에서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농촌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꾸리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앞당겨 실현하고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농사의 주인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농업근로자들이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사회주의협동전야에 순결한 땀을 아낌없이 묻어야 한다.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다수확우량품종들을 많이 육종하여 대대적으로 퍼쳐야 한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력으로 흥하는 농장과 작업반, 분조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 농산과 축산, 과수와 같은 농업부문들에서 생산열의를 계속 고조시켜 알곡과 고기, 알, 젖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쟁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집단적혁신으로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들을 아로새긴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이 되는 2017년에도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려야 한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전 동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사업체계, 본신임무수행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설계하고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농근맹사업을 동맹규약상 요구대로 진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당조직들이 농근맹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잘 도와주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농근맹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고 농근맹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를 강화하며 농근맹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여주어 농근맹조직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업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배심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전체 농근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동맹건설과 활동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를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은 무한한 격정과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다.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전체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농근맹원들은 지금 무한한 격정에 휩싸여있다고 하면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농근맹조직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농업근로자동맹의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체 농근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동맹건설과 활동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겠다.

평양시농근맹위원회 위원장 허덕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수도의 농근맹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 자란 긍지와 함께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모신 크나큰 긍지로 하여 가슴설레인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력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을 뼈에 새길수록 그 과학성과 진리성, 혁명성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의 앞길은 창창하며 새 힘이 부쩍부쩍 용솟음친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돌진해나가도록 앞길을 밝혀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진정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농근맹조직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함경남도당위원회 부장 김규천은 도안의 모든 농근맹조직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며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도안의 모든 농근맹일군들이 농근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농근맹조직들에 제때에 알려주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장악지도하며 특히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게 적극 떠밀어주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농근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실천해나가는데서 우리 당일군들이 한몫 단단히 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강서구역 청산리초급농근맹위원회 위원장 리광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받아안고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단위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겠다.

그 실천을 위한 방도가 력사적인 서한에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있다.

우리는 농근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지향시켜나가겠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농근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김정일애국주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높은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된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키워나가겠다.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휘황한 설계도

숙천군농근맹위원회 위원장 김현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휘황한 설계도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은 우리의 가슴은 지금 한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농업근로자동맹이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는 군안의 모든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겠다.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과 당의 농업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 집단주의교양 등 사상교양사업을 농근맹원들의 준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해나가겠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된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키워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농근맹일군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치솟친다고 하면서 **안변군 천삼리초급농근맹위원회 위원장 최필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농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그 기세로 동맹원들속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안고 모든 농근맹원들이 제손으로 자기 고향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모든 농근맹원들이 혁명적군인정신과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실천투쟁에 구현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윤산군 성봉리 부문농근맹위원회 위원장 문정식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전야에 순결한 피와 땀을 묻으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농근맹원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이고 믿음이다.

우리는 농근맹원들을 사회주의농촌테제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총말동, 총궐기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깐지게 하도록 하겠다. 모든 농근맹원들을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으로 준비시키며 그들속에서 발명, 창의고안,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겠다. 그리하여 분조앞에 맡겨진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전위대오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송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200일전투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가 열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사업체계와 규률을 엄격히 세워나가겠다. 농근맹사업전반을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지도하며 동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워나가겠다. 농근맹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아래농근맹조직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급 동맹조직들을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전위대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만포시농근맹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은 우리 농근맹조직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 위력한 무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동맹생활지도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진행하여 농근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그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지니고 동맹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어나가겠다. 시안의 모든 농근맹초급조직들이 농근맹원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모든 동맹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적극 불러일으켜나가도록 하겠다. 핵심, 열성농근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하며 동맹조직들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모든 농근맹초급조직들을 그 어떤 임무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준비시켜나가겠다.

무산군 문암리초급농근맹위원회 위원장 채호석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기본전투단위인 농근맹초급조직들을 쇠소리나는 전투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의다지였다.

우리 농장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사상정신적무기를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 달려나가겠다.

기층조직인 초급단체를 강화하는것은 전 동맹을 강화하는 기초로, 출발점으로 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초급단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농장안의 모든 초급단체들을 전투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다.

모범초급단체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 대렬을 늘어나감으로써 농근맹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겠다.

청단군당위원회 부장 황명근은 우리 당이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얼마나 중시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고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에 충실하고 정치실무능력이 있으며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군중성이 있는 사람들로 농근맹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겠다. 또한 농근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조직진행해나감으로써 군안의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혁명성과 조직성이 강한 전위부대로 만들겠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대회참가자들

본사기자 리 룡 규 찍음

위대한 김일성조선,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온 누리에 빛내이시며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영원한 태양의 나라 무궁토록 번영하리

12월의 이 땅에 흰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쏟아져내리는 눈발속에서 어버이장군님 가지 마시라며 따라서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어느덧 사계절이 다섯번이나 바뀌였다.

5년, 그 나날은 정녕 길었던가, 짧았던가.

장구한 인류력사에서 5년간은 순간이라고 할수 있다. 허나 세계는 몇백, 몇천년의 력사에도 비길수 있는 그토록 성스럽고 위대한 년대기를 다름아닌 조선에서 보았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태양이 어떻게 눈부시게 솟아올라 누리를 밝히는지, 력사의 억풍을 어떻게 순풍으로 길들이며 사회주의강국의 승리라는 대안을 향하여 곧바로만 달려올수 있었는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서로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일어나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그이께서는 더더욱 발걸음소리 높여가시며 우리 조국을 이끄시였다.

뜨거운 격정속에 어려온다. 장군님의 영생의 숨결을 들으며라는 말이 참으로 좋다고, 이 말만 외워도 눈물이 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그 모습.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온 나라 곳곳에 공화국의 무궁강대한 앞길을 축복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함께 모시도록 하신분도, 모자이크로 형상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도록 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나 마음속에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안고계신 그이이시여서 만수대언덕에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던 날 손수건을 꺼내시여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고 또 닦으시였다.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도 큰것이여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바꾸어모시자고, 그러면 만복이 넘쳐나고 나라가 흥해질것이라고 뜨거움에 젖어 말씀하시였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조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되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단위들을 먼저 찾으시며 온 나라에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더라면…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흘륭히 일떠선 창조물들을 대하실 때마다 절절히 하신 말씀이다.

오늘도 초고층에 불야경을 자랑하는 창전거리를 밤이 시도록 걷고 또 걸으며 사람들은 창전거리건설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를 뜨거운 격정속에 돌이켜본다.

창전거리건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구상하시고 발기하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눈앞에 둔 때에는 만수대지구의 낡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다 헐고 인민구장과 만수대거리살림집과 같은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며 나머지 부지는 공원화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수령님의 동상앞에 더 환히 열리게 되여 평양시의 중심축이 완전히 살아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력사에 없는 건설전투를 발기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낮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돌아보시며 수많은 강령적 가르치심을 주시였고 만수대지구가 수도의 중심답게 자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어디 그뿐인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릉라인민유원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 력력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돌아보느라면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뵈옵고 장천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보고드리겠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어려온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웅장한 자태를 바라보느라면 저 멀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우리들을 굽어보시며 장하다고 축복해주고계실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뜨거움에 젖은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진정 이 모든 창조물들이 그리도 소중하게 안겨오는것은 바로 그 하나하나에 우리 조국을 수령님들의 념원과 리상이 꽃피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로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그토록 소중히 새겨져있기때문이리라.

크나큰 그 충정의 세계속에 문수물놀이장의 113건의 형성안에 대한 이야기며 우리 원수님의 귀중한 혁명시간에 대한 눈물겨운 사연들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게 된것 아닌가.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나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흐른 충정의 5년간은 이 땅에 력사에 류례없는 대번영기를 펼쳐놓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시작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가 신문, 방송을 통하여 전해진것이 800여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놓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하많은 밤이며 걸으신 머나먼 길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을것인가.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입니다. …

이것이 공화국의 력사와 미래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여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영광, 륭성과 번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굳히신 신념이고 의지이다.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사나운 바다길을 헤쳐가시던 때에도, 원쑤들과 코를 맞대고있는 최대열점지역에서 배심돋돋히 초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그리고 전쟁의 도화선에 공공연히 불을 지르려 미쳐날뛰는 적들의 발악적책동에 맞서 작전계획에 최종수표를 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서는 공화국기의 세찬 파력임이 한시도 멎은적이 없었다. 애국가의 장중한 선률이 울려나오면 그토록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계시던 모습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체육인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계시며 필승의 담력과 기상을 안겨주시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업적이 어려있는 람홍색기발의 색조를 더 아름답게 물들이고 세계의 하늘높이 휘날려가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를 더욱 확신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낳은 제2의 애국가—《조국찬가》,

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9월의 그날에 자신들을 세워보느라면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에 넘쳐 우리 조국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눈에 삼삼히 어려온다.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붓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는 우리 조국, 누리에 찬연히 빛나는 우리 공화국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다.

김일성, 김정일조선,

그 부름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것이여서 지난해 8월 나라에 적들의 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성되였던 엄중한 사태속에서 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를 총화하시며 터치신 심장의 웨침도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였다.

지난 11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걸어온 5년간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설레이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던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가 비꼈있는 백두산, 이 땅우에 거치는 바람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희망의 등대인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사회주의강국, 백두산대국에로 가는 지름길이 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는것이며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것이다.

두해전 하늘과 땅을 휩쓸며 온 산악을 통채로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에 온몸을 맡기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백두산의 억센 기상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기상이고 백두산의 휘몰아치는 칼바람소리는 사회주의강대국이 소리치며 일떠서는 함성이며 백두의 산발들에 내리는 흰눈은 최후승리를 이어서 지난해 8월 나라에 적들의 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성되였던 엄중한 사태속에서 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승리를 총화하시며 터치신 심장의 웨침도 위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였다.

지난 11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12월이 눈앞에 다가오면 그때, 걸어온 5년간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설레이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찌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던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가 비꼈있는 백두산, 이 땅우에 거치는 바람 행운을 불러 영웅조선 승리의 길 향도하는 희망의 등대인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사회주의강국, 백두산대국에로 가는 지름길이 있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는것이며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것이다.

두해전 하늘과 땅을 휩쓸며 온 산악을 통채로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에 온몸을 맡기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이 태동하면 온 나라가 태동한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백두산의 억센 기상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기상이고 백두산의 휘몰아치는 칼바람소리는 사회주의강대국이 소리치며 일떠서는 함성이며 백두의 산발들에 내리는 흰눈은 최후승리를 무르는 축하의 꽃보라가 아니랴.

하기에 삼지연군을 찾으신 지난 11월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장군님의 동상을 오래도록 우러르고 또 우러르시며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에도 눈이 내렸지,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살붙이처럼 사랑하시던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신것이였다.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고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높이 추켜드시였던 혁명의 붉은기를 절대로 놓지 말고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에 무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의 의지에 떠받들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으로 영생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이렇게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 …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푸른 하늘가에 우리의 성스러운 공화국기가 휘날린다.

빛나라 우리 조국, 영원한 태양의 나라여!

위대한 김일성조선,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이것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이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 수 필 ◁

영 생 법 전

영생법전!

12월의 언덕에서 그 의미를 다시금 음미해보는 나의 마음은 격정에 넘친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신념의 기둥, 절절한 념원이 바로 이 법전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지고 현실로 꽃펴나는것이며 그 어느 민족도 그 영광을 지닐수 없는 태양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기때문일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나게 하여야 합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고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며 승리의 상징입니다.》

얼마전 한 일군을 만났던 때의 일이 떠오른다.

그 일군은 3년전 4월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되던 못 잊을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채택된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들의 의사와 절절한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억척불변의 정신적기둥을 세워주는 세상에 있어보지 못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라고…

그 일군의 이야기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무릇 력사에 존재한 법들은 해당 국가와 사회의 진면모를 말해준다고 할수 있다.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발생한 법은 오랜 세월 착취계급의 리익을 대변하는것이였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고 사회주의국가가 세워지면서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한 법들이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였다.

법은 주권을 쥔 계급의 국가적의사로 표현되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행동규범의 총체인것으로서 오늘날에도 어디까지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인류력사의 그 어느 법전에도 절세위인들의 영생을 법적으로 담보한 례는 없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자욱을 남긴 수령들의 혁명업적이 법전에 새겨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의 고귀한 업적들이 제국주의앞에 굴복한 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거세말살된 비극들을 력사는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자애로운 인민의 령도자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이 세상 그 어느 인민도 실현할수 없었던 수령영생위업의 새로운 장을 현실로 펼쳐주신분은 오직 우리 원수님뿐이시다.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그 소망을 헤아리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고 온 나라 인민들이 언제나 태양의 성지를 찾을수 있도록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을 채택하도록 력사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존엄과 상징으로,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으로 대대손손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자주 나가 휘세하였던 나에게는 자기 집의 뜨락에 들어서듯 스스럼없이 태양의 성지를 찾고찾던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수도 평양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뵙군 한다는 우리 인민들의 격정의 목소리, 태양의 성지를 찾을 때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 하는 자각을 다시금 간직하게 된다고 심금을 터놓던 일군들…

천만군민이 리치는 심장의 토로는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수령의 영생은 결코 사람들의 추억이나 력사기록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천만군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있다는 영생의 진리를 새기여주는 격정의 목소리였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민족도 가져보지 못한 수령영생의 법전이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절세위인들의 한생의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는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채 히 성

억 척 불 변 의 신 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나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두해전 2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구절구절이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거세찬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지난 6월, 선군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은 또다시 뜻깊은 시작을 맞이하였다.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시험발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던것이다.

뜻깊은 그날 시험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충정의 피를 펄펄 끓이며 우리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높이 추켜들고 사상의 힘, 일심단결의 힘으로 반드시 조선혁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우리의 천만군민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환희를 얼마나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던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주체혁명위업계승의 확고한 의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된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전례없는 기적과 폭풍을 일으키며 최후승리를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진정 탐암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뚫을수 있다고 하시며 혁명사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부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온 나라에 5대교양의 거세찬 열풍이 일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안아온 승리

당에서 고도로 중시하고있는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성과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우리 식의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발완성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그 길에서 순간이라도 주저앉을세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성공에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대한 선군령장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는 그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심장의 웨침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모진 시련도, 접쌓이는 난관도 이겨내시며 우리 나라를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도 빛나는 청년강국

청년강국!

백두령장의 품속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이 나라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력사에 길이 빛날 새로운 시대어에 얼마나 무겁게 담겨져있는것인가.

오늘도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를 안고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백두의 정갈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단련하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배짱과 신념을 키운 청년전위들은 우리 당의 가장 믿음직한 계승자들이며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들입니다.

당의 믿음과 사랑속에 조직력과 규률성이 강하고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 불태우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대장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게 된것은 몇십, 몇백만kW의 전기를 얻는것에 비할수 없는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런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입니다. …

사랑이면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그 어디에 있으랴.

정녕 우리 청년들을 청년강국의 주인,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조국은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최상의 경지에 이른 국력

주체101(2012)년 12월 1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한 결단을 내리시였다.

위성발사승인, 참으로 그것은 우리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할 장쾌한 선언이였다.

발사를 앞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곧바로 중앙조종실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인사를 따뜻이 받아주시고 진강도 물어주시면서 그들의 긴장감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시각을 한초한초 기다리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흥분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러한 일군들에게 신심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수령님께서 내 나라의 첫 기관단총으로 국가사격시험을 하신 력사적인 날입니다. 이처럼 뜻깊고 의의있는 날에 위성을 발사하므로 반드시 성공할것입니다.》

우리의 운반로케트가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환한 웃음속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고대하여온 위성발사명령을 내리시였다.

땅을 박차고 운반로케트가 솟구쳐오르는 순간이 10년 맞잡이인듯 흥뚜했다.

위성발사자들의 긴장된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오시였던 길을 따라왔다고, 장군님께서 하신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다시금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드디여 인공지구위성이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였다는 판측자료가 지휘소에 전해지는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이 순간을 위해 그이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 헌신은 그 얼마였던가.

그 심혈과 로고, 헌신속에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림에 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빛나게 관철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우리 나라 로동계급이 만든 첫 기관단총시험사격을 하신 력사적인 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를 지도해주신 뜻깊은 시간에 우주에 치솟아오른 우리의 국력,

참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여 성공시킨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최상의 경의였다.

본사기자 함 영 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내 조국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휘황찬란하리라. 본사기자 리 진 명 촬영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농근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자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궐기모임이 8일 강서구역 청산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강서구역안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농근맹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산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길상봉, 강서구역농근맹위원회 위원장 하용남, 태천군 운룡협동농장 농장원 오연희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근맹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를 보내주시는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이며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동맹건설과 활동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근맹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맹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근맹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수령결사옹위투사들로 준비시키며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움으로써 농근맹조직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전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다그쳐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며 당의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오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역할을 높이고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뜰하고 짠지게 하며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사업체계를 세우며 도, 시, 군농근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고 초급단체를 강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각급 농근맹조직들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농근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쌀로써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농민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황해남도의 기본임무는 농사를 잘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방송선전차, 로전방송설비들을 전투현장에 집중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다음해농사차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사업을 완강하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안악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로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논밭갈이를 본때있게 다그쳤다.

그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수천정보의 논갈이를 해제끼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일군들과 사무원, 농업근로자들을 총동원하여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9 800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하천공사를 단 3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봉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밭갈이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앞세를 메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이끌어나갔다.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사이, 부림소관리공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그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짧은 기간에 논갈이는 일정계획보다 앞당겨 수행하였다.

신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다음해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은 다음해농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우룡천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낼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앞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하루동안에만도 1만 8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8 000여m의 석축을 하였으며 5개소의 1만 4 000여m구간에 대한 공사를 3일이나 앞당겨 성과적으로 끝냈다.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농사차비에 떨쳐나 일자리를 풍풍 내고있다.

특히 삼지강, 례림, 북지협동농장을 비롯한 랭도업적단위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찾아오시여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다음해농사차비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해주시와 연안군, 벽성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의

생일축하모임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의 생일축하모임이 8일 4.25려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 발언한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대회기간 생일을 맞는 참가자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대회참가자들이 오직 당을 따르는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며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두가 오늘의 이 영광을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농근맹원들의 뜻깊은 대회함을 마련해주시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동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였으며 한없이 뜨거운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총련 조선통신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최흥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통신사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을 때마다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것이다.

대표단은 이밖에 과학기술전당, 자연박물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도루메기료리경연 진행

전국도루메기료리경연이 7일과 8일 원산시에서 있었다.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경연에는 50개의 인민봉사부문, 대외봉사부문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봉사단위들과 각 도사회급양봉사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지정료리, 료리전시, 시범출연으로 나뉘여 진행된 경연에서는 매 단위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료리사들이 현장에서 가공하여 내놓은 여러가지 도루메기료리들을 심사하였다.

높은 료리가공기술을 발휘하여 물고기의 고유한 맛을 잘 살리면서도 영양가가 있게 가공한 튀기, 간장졸임, 양념찜을 비롯한 특색있는 도루메기료리들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참가단위들에서 전시한 도루메기구이, 도루메기식해 등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료리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수산성, 식료일용공업성 산하 단위들에서 만든 각이한 도루메기제품들도 출품되여 경연을 이채롭게 하였다.

경연에서는 인민봉사부문에서 옥류관, 청류관이, 대외봉사부문에서 마식령호텔, 강원도대외봉사관리처가, 성, 중앙기관부문에서 경흥지도국, 대성지도국이, 각 도부문에서 평양시사회급양관리국, 강원도급양편의관리국이, 도루메기가공품에서 백운산종합식료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15개 단위들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상장이 수여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황금해의 새력사와 더불어 《이채어경》이 펼쳐지는 속에 동해의 항구도시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도루메기료리경연은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식생활수준과 료리기술을 높이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로씨야에 갔던 문화성대표단 귀국

박춘남문화상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성대표단이 로씨야의 싼크트-페쩨르부르그에서 진행된 제5차 국제문화연단에 참가하고 8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인범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과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로씨야련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은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악용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대답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미국회 하원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라는것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1월 29일 미국회 하원은 우리에게 재미동포들이 북에 살고있는 가족, 친척들과 만나는것을 허용할것과 조선반도평화정착에 기여할수 있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놀음을 벌리였다.

《결의안》통과이후 미국회 의원이라는자들은 《10만명 재미조선인들의 리산가족상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느니, 《재미리산가족들의 소원》이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궤변이 아닐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켜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산생시킨 기본장본인이며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친혈육들의 상봉마저 이루어질수 없게 가로막고있는 원흉이다.

미국의 불법적인 남조선강점과 침략전쟁도발, 천지탄공같이 없었다면 우리 겨레가 오늘과 같이 북과 남, 해외로 갈라져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야 하는 가슴아픈 비극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특히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아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고의적으로 파탄시켰으며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살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길을 계속 차단하여왔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수 없는 미국의 흉물스러운 정체이다.

그러한 미국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에게 《허용촉구》니, 《구체적인 조치》니 하며 삿대질을 하는것이야말로 양키식철면피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재미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언제든지 그리운 조국을 방문할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며 본인들의 의사와 희망대로 가족, 친척들과의 상봉을 실현시켜주는 성의있는 동포애적조치들을 다 취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회가 지난 2008년 1월 그 무슨 《재미리산가족상봉지원법안》이라는것을 꾸며낸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조작한것은 이 문제를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구실로, 《인도주의》의 허울을 쓰고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범죄자의 흉악한 정체를 감추기 위한 연막으로 씌워으려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그것은 이번 《결의안》이 우리를 모해하는 불순한 내용들로 채워져있을뿐아니라 반공화국인권모략가인 미국무성 《북인권특사》 로버트 킹이라는자가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다루어온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당사자인 재미동포들까지도 미국회에서 조작된 《결의안》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것》이며 《리산가족상봉이나 조선반도평화보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전면부정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제재와 압살책동에 광분하면서 세계도처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인권유린범죄를 일삼고있는 미국은 그 무슨 《신뢰구축》과 《인도주의》에 대해 운운할 초보적인 자격도 없다.

미국이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까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악용하려고 기도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할수록 저들의 흉심과 철면피성만을 더욱더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것이다.

미국이 실지로 재미동포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을 리간시키고 통족대결을 부추기는 천만부당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회의정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되였다.

총회에서는 해내외의 제 정당, 단체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뜨거운 열의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되였다.

총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또한 북, 남, 해외실무회의에서 협의한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로 하며 전민족대회준비를 위한 북, 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올해중으로 내오기로 한데 따라 북측실무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하였다.

총회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주체105(2016)년 12월 8일
평 양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청진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8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판자니아국적선박 《에버브라이트》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장군이시며 특출한 령도실력과 고결한 인품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두에서 이끄시여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신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전국제염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제염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7일과 8일에 온천군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소금공업관리국,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온천제염공업대학 등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기술자, 박사원생, 학생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제염소들에서 함사를 앞세워 지하초염수에 의한 새로운 소금생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소금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 과학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이룩한 60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최근 제염소들에 도입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소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은을 내고있는 소금걸이기계, 흙대형시추기, 수자식농도계, 소금발짠물스밈 및 증발량측정기구 등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서는 《운하소금발구역에서 퇴적층의 구성과 지하초염수의 분포특성》, 《제염공업에서 에네르기절약형공정의 구성》, 《지하초염수로부터 칼리움의 분리》, 《연백지구 지하초염수개발추공의 안정성평가》, 《연백지구 지하초염수의 수질특성과 경제적효과성》을 비롯한 론문들이 경제적의의가 큰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론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돌격전의 기수

덕성탄광 5갱 채탄1중대장 강원철동무는 지난 17년동안 대오의 앞장에서 돌격전의 기수가 되여 중대를 이끌어나가고있다.

지난 7월말 중대가 채탄장을 옮길 때였다. 일부 채탄공들은 걱정부터 앞세웠다. 그때 그들에게 강원철동무는 말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그냥 내버려두면 그곳의 석탄은 영영 묻히고말것입니다.》

진짜배기탄부의 본분을 깨우쳐주는 중대장의 말은 채탄공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돌격전의 기수가 되여 언제나 앞세를 메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오를 이끄는 중대장의 뒤를 따라 문광삼, 김명철동무들을 비롯한 채탄1중대의 탄부들은 막장보수와 석탄생산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탄광적으로 제일먼저 년간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온 나라의 기쁨, 세계를 뒤흔든 선군조선의 체육신화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의 장거를 두고

백전백승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한 승리자들

영원한 태양의 빛발아래 비약하는 내 조국의 기상을 온 누리에 과시하는 또 하나의 체육신화가 창조되여 이채의 마지막달까지 끝없이 격동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이역만리 파푸아 뉴기니아땅에서 펼쳐진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단연 우승!

그 잊지 못할 대회과정을 되새길수록 끓어오르는 감격을 금할수 없다.

유럽의 강팀들중의 하나인 스웨리예팀과의 조별련맹전 첫번째 경기로부터 마지막결승경기까지 대회 전과정에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놀라운 경기모습은 세계녀자축구전문가들과 관중들의 눈뿌리를 뺐다.

시종일관 변함없고 계속 고조되는 정신력과 의지, 상대팀들의 공격을 여지없이 좌절시키며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련속 펼친 놀라운 전법, 경기의 마지막까지 진할줄 모르는 강한 육체…

말처럼 쉽게 성취할수 있은 승리가 아니였다.

체육경기는 정신력과 의지의 대결인 동시에 기술과 전술의 대결이다.

키어이 우승하여 어머니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드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총정의 200일전투를 벌린 우리 선수들,

끊임없이 발전하는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는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전술을 억척같이 다지기 위한, 말그대로 결사전이 펼쳐진 한 우리 선수들의 훈련장이였다.

남들은 열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그 힘든 고비들마다에 주장 최설경선수를 비롯한 온 집단이 신념의 구호를 힘있게 합창하며 일떠서 자기들의 특기를 더욱 굳게 다졌고 중량물들기를 할 때에도 《조국을 위하여 한번 더 들자!》고 심장으로 웨치며 억센 힘을 키워왔다.

당앞에 결의한 전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식의 경기방식을 더욱 완성할 일념으로 유남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치며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적극 탐구도입한 책임감독 황영봉동무.

탐구의 세계를 헤쳐갈수록 자기 땀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심장을 더욱 끓였다.

책임감독의 이 완강한 탐구정신에 보조감독들도 마음을 합쳤고 선수들모두가 더욱 기세차게 달렸다.

이렇게 다져온 우리의 힘, 우리의 자강력은 마침내 용포성없는 전장과도 같은 이번 대회에서 련이어 승리의 메아리를 높이 터쳐올렸다.

에스빠냐팀과의 8강자전때였다. 먼저 두골을 성공시켰던 우리 팀이 아쉽게도 두점을 잃었다. 그만큼 상대팀도 우리 선수들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하고 나왔었다.

하지만 그 어떤 불리한 정황도 우리 팀의 자신심을 꺾지 못했다. 황영봉동무는 기동성있는 전술적변화로 경기지휘를 능란하게 했고 11명 선수들모두가 더욱 용기백배하여 연장전 후반 1분만에 멋있게 득점함으로써 이 경기도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한 때 우리 선수단 성원들은 조국에서 날아온 축하전문들을 받아안았다. 김종대전기기판차련합기업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보내온 축하전문들이였다.

한자한자 새겨볼수록 조국의 뜨거운 손길에 가슴은 벅차올랐다. 훈련의 나날 백전백승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끓어번졌다.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 경기보장에 이르기까지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피며 적극 고무해준 보향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진정에 대한 추억도 더욱 뜨겁게 갈마들었다. 이렇게 조국을 안은 심장으로 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었다.

우리 선수들이 준결승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공격전술로 미국팀을 보기 좋게 타승하자 국제축구련맹 성원들부터가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이제 결승경기에서까지 이기면 조선팀은 세계녀자축구력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기게 된다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준결승경기가 끝난 후 또다시 조국이 보내준 축하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위정심선수가 시를 읊었다. 멋구절 읊느라니 선수의 눈가에서는 뜨거운것이 절로 솟구쳤다. 감독, 선수들모두가 크나큰 감격을 금치 못하며 심장으로 따라읊었다. 그럴수록 뇌리에 차넘치는것은 오직 한생각,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키어이 조선의 통장훈을 부르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이렇듯 비상한 정신력으로 충만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을 또 하나의 200일전투의 격전장으로 전변시켰다.

조국과 인민의 당부와 조선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파푸아뉴기니아사람들을 비롯한 온 세계의 기대까지 다 안고 더욱 힘차게 달리고달려 프랑스팀도 3: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승리의 우승컵을 쟁취하였다.

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우리모두의 감사의 인사라고.

정녕 그렇다. 나라의 녀자축구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경기전법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유훈, 우리 식의 경기전법을 완성할수 있는 지름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 오늘의 승리이다.

사상전, 두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우리 식 경기전법으로 경기전과정에 21차례의 불록탄을 터뜨리고 무비의 공격정신으로 전승을 기록한 우리 선수들의 승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전백승하는 영웅조선의 기상과 본때의 빛나는 과시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고결한 애국충정, 자력자강의 정신이야말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을 더욱 긍지높이 들어올렸다.

하여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해에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와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다 우승한 나라로 기록되였다.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에 승리의 금메달을 안고 돌아온 그날 우리 감독, 선수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토로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선수후비들을 옳게 선발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품들여 잘 키워야 합니다.》

만사람이 알고싶어한다. 세계의 패권을 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은 과연 어떤 선수들인가.

오늘은 세상이 다 알고 온 나라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떠받들리우는 축구선수들이지만 그들이 축구를 할 소중한 꿈을 품었을 때 저 철없는 소녀들이 10년후에 월드컵의 당당한 주인으로 등장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신천군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군의 자랑인 축구명수 김정화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있다.

에스빠냐팀과의 준준결승경기 마지막연장전에서 귀중한 한 골을 넣어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김정화선수의 멋진 경기모습을 보고 신천사람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녀자축구선수를 배출한 이 고장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김정화선수의 성장과정에는 그의 남다른 소질을 발전하고 축구의 세계에로 이끌어준 한 정범한 체육지도교원의 열정도 슴배어있다.

룡성구역 어은동에서 나서자라난 은뿔상수상자인 김소향선수, 미국팀과의 준결승경기에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리향심선수도 그러하였지만 올해에 두차례 진행된 월드컵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안주태생인 승향심선수 역시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고싶어 집마당에서 뛸을 찼습니다. 그런 저를 축구선수로 키우겠다고 선생님이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집에 찾아왔습니다. 축구선수가 되려는 꿈은 이렇게 움터났습니다.》라고 깊은 감회속에 이야기하였다.

고향집뜨락과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우승에로의 길!

여기에 조국을 빛내일 체육선수후비육성에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는 체육지도교원들에 대한 새 세대 축구선수들의 고마움의 인사와 이런 교육자들을 키워낸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목소리가 비끼였다.

우리 선수들중에는 부모가 체육선수 특히 축구선수였던 선수들이 특별히 많다. 집이 증산군 석다리에 있는 문지기 김명순선수의 어머니는 륙상선수였고 아버지는 축구선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여러번이나 위험한 공을 빠른 정황판단으로 막아낸 그는 원래 키가 남보다 큰것으로 하여 문지기로 될 결심을 하게 되였다고 한다. 맵시있는 발차기로 두각을 나타낸 전소연선수의 아버지는 어느 한 체육단 축구감독으로 사업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함흥시에 집이 있는 주효심선수의 아버지는 권투선수, 손옥주동무의 어머니는 우리 녀자축구의 첫 세대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이렇게 체육인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선수들의 가슴속에는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뒤를 이어 록 금메달을 안아오려는 소중한 꿈이 자리잡고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축구를 하겠다고 할 때 부모들은 적극 떠밀어주었고 선수생활경험들도 말해주며 딸들을 이끌었다.

선수들의 집주소들을 알게 되는 과정에 우리는 보통강구역의 체육인살림집에서 사는 주장 최설경동무도 만나보고싶었다.

우리와 만난 그는 대번에 《전 언니와 늘 경쟁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언니인 최미경동무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의 금메달을 안아올렸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한 자랑을 안고있었다. 어렸을 때 언니를 따라다니며 축구를 배운 최설경동무는 언니를 따라앞서려는 승벽심을 안고 훈련장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였다.

이렇듯 희망과 소질만 있으면 당과 국가의 크나큰 배려속에 누구나 축구명수로, 체육영웅으로 자라나는 고마운 제도가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이다.

바로 고향도 부모도 성격도 서로 다르지만 우리 처녀들모두가 자기의 경력란에 이런 자랑찬 성장의 년륜을 새기며 축구선수로 자랐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위대한 당의 품, 사랑하는 조국의 품이 있어 그들이 걸어온 길도 하나였고 우승의 시상대에도 함께 올랐다.

하기에 우리 선수들은 부모들도 자신들도 미처 몰랐던 재능의 싹을 찾아 꽃피워준 어머니조국의 품에 가장 훌륭한 선물을 안고 떳떳이 돌아와 안긴것이며 조국은 사랑하는 딸들을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높이 올려세워주는것이다.

강 효 심

어머니조국과 처녀들의 꿈

☆ 월드컵에로 이어진 성장의 발걸음 ☆

조선녀자축구팀 공격식축구를 과시, 련이어 2개의 월드컵 쟁취

세계언론들 보도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이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친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국제축구련맹인터네트홈페지는 《2016년은 조선축구의 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요르단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16년 17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조선팀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조선이 또다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 어느 나라도 조선과 같이 한해에 두차례나 성과를 달성한 전례가 없다.

조선녀자축구팀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21개의 골을 넣어 자기의 공격식축구를 과시하였다.

조선팀의 완강한 공격정신과 지칠줄 모르는 투지가 맞다드는 모든 팀들을 타승할수 있은 요인으로 되였다. 조선은 결정적인 득점들로 월드컵을 쟁취함으로써 올해 《유럽의 강자》로 명성을 떨친 프랑스의 축구신화를 깨버렸다.

조선녀자축구는 10년만에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우승컵을 다시 차지하였다.

유럽의 언론들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였다.

언론들은 프랑스팀이 경기초반에는 자국응원단의 요란한 응원속에 우세를 보였으나 아시아의 강팀인 조선팀은 통점골을 넣은데 이어 후반전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운영하였다. 조선팀은 이번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전과정에 한번도 패하지 않고 련승을 이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중앙TV방송은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승리한 소식을 전하면서 련이어 2개의 월드컵을 쟁취한 조선의 선수들은 축구인재들이라고 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승전소식이 꽃피운 이야기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소리

신문과 방송으로 승전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수들의 투쟁과 위훈에 대해 알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축구련맹의 한 일군은 온 나라가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경기소식으로 들끓었다고, 축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은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

미국팀과의 준결승경기가 진행된 11월 29일 축구련맹의 사무실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기소식을 묻는 사람들로 하여 전화종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나이와 직업,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울리는 목소리는 하나같았다.

《우리 선수들이 이겼습니까?》

그들중에는 대동강구역의 류성일동무도 있었다. 이번 경기대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남먼저 경기소식을 알군 한 그였지만 그것은 그 혼자만의 흥분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체육부문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그에게 친척들과 동무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물어왔던것이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의 승전소식은 순간에 온 나라 각지에 퍼져갔다.

류성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인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굳은 믿음에 기초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을 믿었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 선수들을 우승에로 떠민것이다.

신심을 백배해준 승전포성

무산군 읍에 살고있는 류영예군인 한광진동무는 원래 축구를 즐겨하군 했다고 한다. 이런 그였기에 축구에 누구보다 관심이 높았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우승한 다음날인 12월 4일 저녁 그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을 안고 텔레비존앞에 마주앉았다.

경기장을 주름잡으며 멋있는 발차기와 맵시있는 빠른 기로 훌륭한 경기장면을 펼쳐 제치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강한 인내력과 투지를 발휘하는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무쇠다리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상대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의지를 더욱 가다듬고 비록 침상에 있지만 조국에 보탬을 줄 결의를 가다듬었다.

이것이 어찌 그만의 심정이라 하랴. 얼마전 북부전선에서의 승전포성에 이어 총정의 200일전투의 마감을 뜻깊게 장식하며 련속 전해진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승전소식은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었다.

손꼽아 기다린 장한 딸들

락랑구역 통일거리1동의 주민들은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전소연선수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릴 때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학교로 오가던 소연선수의 모습을 인민반사람들은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밤늦도록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조국의 금메달을 안아올 축구명수의 모습을 그려보군 했었다. 결승경기가 진행된 날에는 온 인민반사람들이 현관앞에서 경기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소연선수의 어머니를 기다렸다.

모두가 자기 딸이 거둔 성과처럼 기뻐하며 저저마다 꽃목걸이를 준비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손꼽아 기다렸다.

자기 동에서 축구명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통일군들도 축하준비로 들끓었으며 승전소식에 큰 힘을 얻고 동안의 모든 주민들이 20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소연선수는 한 어머니의 딸만이 아닌 온 마을사람들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였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승전소식에 접하고 온 나라의 마음과 가정들이 이렇게 축하의 꽃대문을 활짝 열고 기다렸다.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 어머니조국이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한 딸들을 이렇게 기다렸다.

본사기자

대홍단의 딸이 된 혜산처녀

얼마전 량강도정보통신국 료환수로 일하던 김철미동무가 대홍단군 신덕농장에 자원진출하여 어느 한 예술영화에서 나오는 최세목의 원형인 최세희동무의 친딸이 된 사실이 전해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최세희녀성으로 말하면 처녀시절에 뜻밖에 하반신마비로 불구가 되였지만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침상에서 손재봉기를 돌리면서 많은 지원품자를 마련하여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내준 훌륭한 녀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7월말 어느날 김철미동무는 최세희녀성이 기적적으로 보게 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이름을 당에 충직한 참된 아들이 되라는 의미에서 리충진이라고 지었다는것과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신덕농장에서 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남편이 안해의 시중을 제때에 들어주지 못하고있는것을 알게 된 그는 생각이 깊었다.

(내가 최세희어머니의 친딸이 될수는 없을가.)

김철미동무는 료환수로 일하는 나날에 작업반 선동원으로서 맡겨진 임무수행은 물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도 언제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동무들을 이끌어왔다.

그러던 어느날 김철미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을 학습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자자구구 되새기는 과정에 새 세대 청년으로서 자기가 서야 할 위치와 시대적사명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되였다.

남이 갈수록 김철미동무의 마음속에는 최세희녀성을 돕는것이 새 세대 청년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 도리라는 결심이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그리하여 김철미동무는 자기의 생각을 부모님과 청년동맹조직에 터놓았다. 부모님과 청년동맹조직은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친근한 동무들과 다정한 이웃들, 부모형제들의 곁을 떠나 대홍단군 신덕농장마을에서 사는 최세희녀성의 딸이 되였다.

김철미동무가 대홍단군 신덕농장에 도착한 날 온 마을사람들이 그를 에워쌌고 리창연, 최세희부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대홍단군체신소 신덕체신분소에서 일하면서 김철미동무는 최세희녀성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어렵고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대홍단의 딸이 된 자기를 뜨겁게 바래워주던 도정보통신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생각하군 하였다.

꽃은 졌다가는 다시 피지만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올수 없는 소중한 청춘시절을 당과 조국,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바칠줄 아는 선군시대의 청년전위답게 대홍단의 한 가정을 위해 자신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김철미동무의 소행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된다.

영광의 땅 대홍단에 뿌리를 내린 김철미동무는 오늘도 저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대홍단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군 한다.

특파기자

격전장마다에 휘몰아치는 기적창조의 열풍

각지 직맹조직들과 직맹원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각지 직맹조직들과 일군들, 직맹원들이 함북도 북부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한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분발하여 일떠서고 직맹조직들이 활력에 넘쳐 들끓을 때 우리 혁명대오의 위력이 한층 강화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될것입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로 각급 직맹조직들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이 자기 단위들에서 귀환강연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동무는 대회가 끝나는 즉시 무산군에 나가 전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북부피해지역의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을 대회에 더 참가시키도록 하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해설해주면서 모든 전투원들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홍남비료련합기업소에 나간 함경남도직맹위원회 위원장 김식동무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속에서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맹렬하게 벌려나갔다.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여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꽃다발을 드린 남구주택건설사업소 로동자 윤만옥동무는 살림집건설장에 나가 건설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였다.

각지 직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사상교양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직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직맹교양거점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의 기본제기를 게시하고 아래단위직맹조직들에서 서한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듦으로써 많은 직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서한을 완전통달하게 되였다.

강서구역직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대회참가자들과 직맹이동해설강사, 직맹해설원들을 강서신발공장을 비롯한 20여개 단위들에 파견하여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으며 구역안의 70여개 교양거점들에 서한의 기본제기를 게시하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평안남도직맹위원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단천지구광업총국 직맹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직맹조직들에서도 사상교양사업을 단위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로 적극 추동하는 각급 직맹조직들과 일군들, 직맹원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총정의 200일전투장마다에서 새 기적, 새 기록이 창조되게 하였다.

철도성 직맹조직에서는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함북도 북부전역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앞당겨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은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길이 자각하고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정광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직맹돌격대 대장 김영태동무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막장에서 주야전투를 벌려 교대당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 김명희동무는 대회장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전기기관차부속품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전국각지의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속에서 수많은 긍정적소행들이 발휘되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직맹위원장 김창봉동무를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은 3개의 갱에 나가 탄부들과 함께 일도 하고 많은 후방물자도 안겨주어 그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김현옥동무는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 동원된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들에게 작업마대 수천개와 많은 생활필수품을 안겨주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금화광산 로동자 송옥희동무와 강원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김명심동무를 비롯한 많은 직맹원들도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총정의 200일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이후 전국각지의 직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과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수많은 긍정적소행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기적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허 일 무

파렴치한 기만술책은 통할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의 장본인인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고있다. 박근혜퇴진투쟁은 로동운동단체들의 총파업과 시민불복종운동, 대학생들의 동맹휴업 등 새로운 단계에서 고조되고있다. 만일 피뢰역도에게 한조박의 량심이나 꼬물만 한 죄의식이라도 있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을것이다.

그러나 뻔뻔스럽기 짝이 없고 권력에 대한 야심과 탐욕이 굴뚝같은 박근혜역도는 《대통령》방거지를 벗을 대신 어떻게 하나 경각에 달한 더러운 잔명을 무지해볼 심산으로 교활한 기만극에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피뢰역도가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된 제3차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날 박근혜역도는 교활하게도 《〈대통령〉직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수작질했다. 이것이 민심의 분노를 속잦혀보려는 간교한 요설, 여야사이에 싸움을 붙여놓고 보수세력의 동정심을 사며 탄핵음직임을 교란시킴으로써 권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해보려는 서툰짜리 오그랑수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기의 만고죄악을 날날이 토설하고 즉각퇴진을 선언할 대신 도리여 거짓말과 들러치기에 급급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염토당토않은 조건부까지 내걸고 사실상 퇴진을 거부해나선 피뢰역도의 파렴치한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박근혜역도가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는 나발을 불어댄것은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다.

역도의 제3차 《대국민담화》발표는 본질에 있어서 탄핵정국교란자전과 시간끌기놀음이다. 박근혜가 《국회》결정이니, 《〈정권〉이양방안》이니 하고 떠벌인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여기에는 《국회》에서의 여야싸움을 격화시키고 탄핵정국을 흐트러놓는 한편 시간을 얻어 보수세력을 다시 집결시켜 살구명을 열어보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지금 남조선정계에서 론의의 초점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탄핵안처리에 집중되고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면 야당의원들만이 아니라 적어도 여당의원 29명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껏 친박계로부터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아온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초불민심이 박근혜퇴진에로 확고히 지향되자 역도를 제물로 삼고 저들의 운명을 건질 심산밑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할 립장을 보이였다. 이들은 박근혜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야당들에 탄핵안발의를 제안하는 한편 역도의 탈당과 하야, 탄핵을 요구하며 비상시국회의를 내왔다.

바빠맞은 박근혜역도는 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부랴부랴 제3차 《대국민담화》놀음을 벌려놓았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임기단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나발질했지만 역도는 여야가 자기와 관련한 그 어떤 합의도 이룰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역도의 속심은 공을 《국회》에 넘겨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여야가 결정을 못했기때문에 퇴진할수 없다고 무한정 뻗치자는것이다.

박근혜역도는 《대국민담화》에서 《모든것을 내려놓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보수세층의 동정심을 사고 이자들을 다시 자기 주위에 끌어모으며 비박계패거리들속에서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데 탄핵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꾀하였다. 실제로 제3차 《대국민담화》발표이후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탄핵안표결에 참가한다는 립장을 뒤집고 대신 집권자의 그 무슨 《명예로운 퇴진》을 운운하여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박근혜역도가 민심의 요구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흉심밑에 온갖 기만술수를 쓰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간교한 년인가.

하지만 피뢰역도의 위기모면술책은 통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드높은 박근혜심판기운을 가라앉힐수 없다. 존재자체가 악으로 되는 청와대망녀를 하루빨리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준엄한 징벌을 가하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기만적인 《대국민담화》놀음을 벌려놓으며 마지막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발광하는 박근혜역도의 뻔뻔스러운 망동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였다. 지난 3일 남조선 전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232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력대 최대규모이다. 투쟁의 거리들에서 울려나온 구호는 《박근혜하야》가 아니라 《박근혜체포》, 《박근혜구속》이다. 투쟁대오의 맨 앞장에 선 시위참가자들의 손에는 초불이 아니라 회불이 들려있었다.

주목되는것은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민심이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도가 계속 사기극에 매달리며 버티기를 한다면 힘에 의한 민중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하고있는 사실이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남조선인민들이 높이 추켜든 초불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벌어질 걷잡을수 없는 사태에 대한 무서운 경고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의 제3차 《대국민담화》발표놀음으로 탄핵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하면서 투쟁을 계속 강도높이 벌려나갈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국회》해산을 요구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탄핵분위기를 흐려놓은 《새누리당》의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치솟는 속에 이 반역당청사에 걸렸던 《퇴송합니다》라는 프랑카드가 주민들이 던진 달걀에 맞아 얼룩이 지고 기발은 넝마처럼 갈기갈기 찢겨져 길가에 나뒹굴었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야당들이 역도의 탄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련대하며 여당을 압박하고있는 속에 세차게 분출한 지난 3일의 초불민심을 기집하여 지켜보고 다시금 놀란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9일에 진행되는 탄핵안표결에 나서기로 결론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민들의 단결된 힘은 이렇게 강하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전하였다.

《박근혜가 민중의 동정심을 구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선택은 단 하나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것이다. 그것이 박근혜의 체포, 구속까지 요구하는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수 있는 길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제아무리 발버둥질을 쳐도 소용이 없다. 청와대망녀가 오그랑수를 쓰며 뻗칠수록 남녘민중이 준엄한 징벌을 내릴 시각은 더욱 빨라지게 될것이다.

심 철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회고하는 모임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회고하는 모임이 2일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모임에는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 연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조선대학교를 총련의 유일한 신진력심육성기지로 믿어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령도와 뜨거운 사랑을 해설과 예술작품으로 감명깊이 형상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은정에 대하여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대학교의 위치와 사명, 학생들앞에 나선 임무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학과정안과 학제를 제련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조국방문이 해마다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고 조국이 가장 어렵던 시련의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은정에 대해 회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2년 2월 28일 조선대학교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에 따라 총련의 민족교육과 새 세기 재일조선인운동의 미래가 크게 좌우된다고 하시면서 조선대학교앞에 나선 강령적과업을 밝혀주시고 많은 자금을 보내주신데 대해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60년의 력사를 몸소 총화해주시고 조선대학교가 시대와 조국앞에 지닌 력사적사명과 본분에 맞게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교포대학으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계속 떨쳐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고 토로하였다.

화면음악 《돌파하라 최첨단을》, 《인민사랑의 노래》를 시청하면서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 전 《대통령》 김대중과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통일시대를 펼쳐주신데 대해 보여주는 력사적인 화폭들과 해설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교육학부 교육학과 3, 4학년 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목메여 불렀다.

출연자들은 청춘의 기백과 망만으로 온갖 난관들을 극복하며 총련의 애족애국운동에서 김정은시대 청년핵심의 영예를 한껏 떨쳐나갈 굳센 의지를 담아 노래 《청춘송가》를 대합창으로 불렀다.

북남사이 협력재개를 요구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장로회가 5일 서울의 피뢰정부청사앞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통성장에서 정화통일기도회를 가지고 북남사이의 협력재개를 요구하였다.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18년전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여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지금은 모든것이 중단되였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과의 협력에 나섰다가 남북관계차단으로 고통받는 기업가들의 생존권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일본과 남조선을 비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일본과 남조선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대변인은 일본과 남조선의 행위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조선인민과 국제사회의 지향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고 밝혔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야말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조선은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남조선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하여 조선반도제침야망실현의 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보고있다.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르헨띠나공산당 인터네트국제문제블레띤 《데또다스 빠르떼스》와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뽈스까지부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생에네르기 적극 개발리용

얼마전 국제에네르기기구가 발표한 보고서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네르기가 처음으로 석탄을 릉가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새로 늘어난 재생에네르기발전능력은 1억 5 300만kW에 달하였다. 태양전지판만 해도 세계적으로 하루평균 50만개나 설치되였다. 이것은 헌시기 세계적으로 재생에네르기개발과 생산에서 변혁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국제에네르기기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재생에네르기로 인한 세계전력시장의 변혁을 직접 목격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오늘날 에네르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제일 중요한 관심사로 되고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지 않고 살수 없는것처럼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공업도 그 《식량》인 에네르기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껏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해온 전통적인 에네르기자원인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제한되여있으며 갈수록 고갈되고있다. 더우기 화석연료는 연소과정에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함으로써 그 가치를 상실하고있다. 이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화석연료에만 매여달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에네르기원천을 다각화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아메리카개발은행과 블룸버그통신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깨끗한 에네르기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10개 나라중 4개가 브라질, 칠레, 메히꼬, 우루과이이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재생에네르기개발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경제적침체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재생에네르기분야에서는 여전히 장성을 기록하고있다. 우루과이에서는 발전량의 30%가 풍력을 통해 얻어지고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는 재생에네르기로 생산한 전력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있을뿐아니라 아르헨띠나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까지 수출하고있다.

손꼽히는 에네르기자원수출국들도 너나없이 새로운 에네르기개발에 뛰여들고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인 아랍추장국련방은 최근년간 재생에네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미 해비침률이 높은 사막에 세계최대의 태양열발전소를 세운 이 나라에서는 가까운 앞날에 태양열에 의거한 전력생산량을 대폭 늘일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고있다. 2030년까지 100만kW의 전력생산능력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총전력생산량의 25%를 재생에네르기로 충당하려 하고있다. 얼마전 이란정부는 전력생산분야에서 재생에네르기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재생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이 총전력생산량의 1%도 안된다고 한다. 이로부터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투자를 늘여 2021년까지 재생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100만kW로 증대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사실들은 재생에네르기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도덕적저렬성을 드러내는 철면피한 망동

일본에서 과거 성노예범죄를 옳바로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일본 도꾜대학의 한 명예교수는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전 당국자가 피해국들에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의 과거범죄와 관련하여 반성할 대신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조선과 중국의 성노예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앞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있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도꾜에서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망동을 규탄하는 모임을 진행한것도 일본시민단체의 주최하에 이루어진것이다.

일본의 적지 않은 량심인들이 성노예범죄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는것은 추악한 범죄로 얼룩진 제국주의력사에 대한 환멸의 표시이며 과거죄악을 깨끗이 청산하고 인류의 량심앞에 떳떳이 머리를 쳐들고 살고싶어하는 일본인민들의 소망의 발현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세계의 규탄은 물론 자기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성노예문제를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성노예모집을 무리하게 한다 해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1938년 일본륙군성 병무국 병무과의 군문서와 조선의 미혼녀성들은 군대의 특수요무(성위안)에 충당한다는 일본군부의 비밀문서 《조선민족대책》을 비롯하여 부정할수 없는 자료들을 통해 성노예문제의 강제성이 충분히 증명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성노예란 말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비단 성노예문제뿐이 아니다.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갖은 악법들에 비낀 저들의 범죄를 부정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그러나 피색필수도 사멸될수도 없는것이 력사의 진실이다. 일본이 전망증환자처럼 아무리 어리석게 놀아대도 죄악으로 엮어진 과거력사는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일본이 정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상기시켜줄수 있다.

1910년 9월 8일에 작성된 《교화의견서》라는 비밀문서에는 왜 일본이 조선민족말살책동에 그토록 광분하였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선이야말로 일본인들의 체질에 맞는 땅이기때문에 인구증가로 인한 일본의 출로는 조선에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족이 말살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 얼마나 날강도적인 론리인가.

뿐만아니라 일본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여있는 외무성기록에는 각종 공출로 인한 조선사람들의 피해상과 일본의 감독통제과정, 징용, 징병제를 비롯한 동원령을 받은 사람들의 가정실태 등이 상세히 씌여져있다.

《공출령은 문자그대로 지상의 명령으로 되여 공출의 완수는 권고나 장려보다도 강압, 강권을 포함하여 강요되는 경우가 극히 많은 상태이다. …조선이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이모저모에서 드러내고있다.》, 《징용은 제처놓고라도 기타 어떠한 방식에 의거하든 출동은 완전히 랍치와 같은 상태이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일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다.

보다싶이 일제가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가혹하게 탄압하고 학살하였으며 랍치, 유괴하였는가 하는 만행자료들은 일본에서 발굴된 많은 외교문서들과 도서들에 의하여 확고히 증명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처사야말로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철면피한 망동이다.

자그마한 죄를 짓고도 항상 불안속에 사는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심리일진대 어떻게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닌보살하며 흑백을 전도하려고 날뛸수 있는지 정상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 잘못을 범한데 대하여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것은 인간사회의 가장 초보적인 륜리이며 엄청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데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하는것이 가해자, 범죄국의 회피할수 없는 력사적, 법적책임이다.

하물며 일본이 과거에 감행한 성노예범죄는 온 세계가 치를 떨며 규탄하는 전무후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획책하면서 도리여 성노예피해자들을 《매춘부》로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량심과 륜리를 떼버리면 야수와 다른것이 없다. 초보적인 량심도 없고 일반적인 륜리관도 못 가진 일본반동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옳겠는가.

오늘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악랄성은 반총련책동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서 더욱 절정을 이루고있다.

일본은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 각종 악법들을 제정해놓고 총련탄압에 미쳐날뛰였다. 올해에만 해도 수많은 무장경찰들과 장갑차들까지 내몰아 총련의 여러 조직들과 학교들을 강제수색하고 총련일군들과 무고한 재일동포들을 폭행, 체포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들을 감행하였는가 하면 우리 동포학생들의 통학길에 위험을 조성하고 신성한 교정에까지 란입하는 깡패행위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지난 9월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이 대성공을 이룩한 소식으로 온 세계가 들썩하자 시샘과 질투에 불젖고 불안과 공포에 떨던 일본의 우익깡패들은 총련중앙회관주변에 수십대의 방송차들을 몰고와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걸고들면서 《총련을 일본에서 내쫓겠다.》고 고아대는 란동을 부리였다. 어제날에는 비극적인 이국살이를 강요하다 못해 《우끼시마마루》를 폭침시켜 해방된 조국에로 돌아가는 조선사람들을 수장해버리려더니 오늘날에는 총련을 강제로 내쫓지 못해 지랄발광하고있다.

과연 비극적인 재일조선인문제를 누가 산생시켰는가. 바로 일본이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아도 일본은 불법무도한 일제식민지통치의 피해자들이면서도 오늘날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들인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존중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며 생활상편의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아니꼬운 심통을 계속 총련에 대고 리뜨리고있다.

일본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 강행통과시키였으며 남조선괴뢰들과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일본이 범죄로 얼룩진 력사를 부정하고 계속 반총련,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떠여달리는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끝끝내 이루어보겠다는 속심의 발로이다.

일본은 현실을 바로 보고 처신하여야 한다.

날로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앞에 일본이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히황한 재침야망실현에 발광하고있는 일본의 망동은 햇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꼴과 신통히도 같다. 일본반동들은 저들 렬도의 운명이 우리의 강위력한 핵주먹안에 들어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죄과를 성근히 반성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할 때에만 자기 나라 인민들앞에, 진리와 량심앞에 떳떳할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마음편히 살아갈수 있다.

손 소 연

숨길수 없는 미국의 위선적정체

국제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생색을 내기 좋아하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그런것이 자기의 흉악한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유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오늘 미국스스로가 날날이 드러내놓고있다.

최근 미국회는 대이란제재를 10년 더 연장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의 비준을 받은 다음 정식 발효되게 된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란의 《끈질긴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제재를 유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는 이것은 핵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이란정부는 그에 철저히 대응할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현 미행정부가 핵합의에 따른 사항들을 여러차례 위반한데 대해 비난하면서 핵합의가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이란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을 비롯한 6개 렬강들을 다방으로 하여 진행된 장기간의 협상끝에 지난해 7월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으로 명명된 핵합의가 이룩되였다. 합의에 따라 이란이 자기의 핵개발능력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은 모든 대이란제재조치들을 해제하게 되여있었다. 미국은 핵합의체결후 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을 동원하여 이란과 미국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는것처럼 선전하며 낯간지럽게 놀아댔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란이 핵합의대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온 반면에 미국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자기의 의무리행을 회피해왔다. 지금에 와서는 제재를 더 연장하겠다는 뻔뻔스러운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란의 힘을 약화시킬것을 획책하면 미국은 그 술책이 더이상 실현될수 없게 되자 이제는 로골적으로 반이란제재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자기의 지배주의야망실현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국제사회앞에서 한 약속까지도 헌신짝처럼 헤버리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란에서 《나라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하는자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추악하고도 위선적인 미국의 행위를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팔레스티나땅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오늘 중동평화의 암으로 국제적지탄을 받고있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은 팔레스티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점지역들에서 정착촌확장책동에 더욱 로골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올해 상반년에만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1 195채의 유태인살림집들을 건설하였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국회가 일부 유태인정착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그 무슨 《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키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정착촌확장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이스라엘은 그들에 대한 탄압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함으로써 이 지역을 류혈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앞에서는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하여 우려한다느니,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도 중동평화의 중재자인듯이 행세하고있지만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정화파괴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미국에 있는 일부 단체들이 이스라엘의 정착촌확장을 위한 자금지원을 계속해왔지만 미국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묵과해두고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였다.

이것이야말로 위선의 극치로서 만사람의 격분을 자아내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팔레스티나인민들은 미국이 말로만 이스라엘의 행동을 반대하지 말고 실로 그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팔레스티나문제에서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태도는 앞으로도 결코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야망을 부채질하면서 그를 리용하여 중동지역정세를 항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손쉽게 실현하자는것은 미국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중동지배전략이기때문이다. 최근 미국 부대통령이 세계유태인대회 만찬회에서 미국-이스라엘동맹관계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뇌까리며 다음기 미행정부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것이라고 공언한 사실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야말로 현 세계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자이다. 미국이 음흉한 권모술수에 매달리며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미쳐날뛸수록 그를 반대하는 국제적규탄과 반대기운은 더욱 고조될것이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중국언론 미국과 일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박근혜역도를 비난

중국의 환구망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박근혜역도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박근혜가 이미전부터 남조선인민의 비판을 받았으며 집권을 위한 정치적토대를 상실하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까지도 박근혜가 현재의 정황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싸드》배치를 다그치고있는것은 애비를 본따서 미국에 잘 보이고 미국이 곤경에 처한 자기를 살려줄것을 바라기때문이라고 조소하고있다고 글은 전하였다.

애더머 배로우 감비아대통령으로 당선

감비아에서 애더머 배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고 한다.

이 나라 선거위원회가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으로 피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인도네시아의 아체주에서 7일 리히터척도로 6.4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땅속 10km 되는 곳에 있었다. 지진으로 이날현재 약 100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하부구조들이 파괴되였다.

또한 6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들의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고 한다.

피해가 혹심한것과 관련하여 2주일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이 나라의 국가재해관리기관은 적어도 1 000명의 인원이 동원되여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리고있다고 밝혔다.

수리아정부군 테로분자들을 련속 공격, 전과 확대

수리아정부군이 테로분자들을 련속 공격하며 전과를 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군부소식통은 정부군이 테로분자들이 웅지를 틀고있던 알레뽀시의 동부주택지구 사만 사바비를 탈환하였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전과는 정부군이 쉐이크 사에드구역을 점령한지 하루만에 이룩되였다. 쉐이크 사에드구역은 테로분자들이 장악하고있는 동부알레뽀의 남부지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한다.

이 구역이 탈환됨으로써 수리아정부군이 다른 주요구역들로 진격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군은 대규모공세를 개시한이래 동부알레뽀의 테로분자들의 관할구역의 큰 절반에 달하는 15개 구역을 점령하였으며 9만여명의 평화적주민이 살고있는 령토를 완전히 해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98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